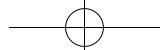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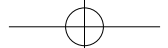


*October Review 2013*

**ABLE SOLID STEA  
CAPABLE CLARIT  
ARANTEED COVE  
PERFORMANCE  
CTIVE EQUITABL  
ADY CAPABLE RO  
FAIR GUARANTE  
LE CLARITY EQU  
EQUITABLE SOLID**





# 목차

인사말	1
재무 실적 하이라이트	2
클레임들	4
푸-울 클레임들	6
언더라이팅	7
재보험	8
투자	9
자산 운영	9

## 재무 실적 개관

**\$1.6** | **\$4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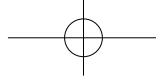
총 자산  
\$bn

유보금과 하이브리드 캐피탈  
\$m

**\$3.86** | **113%**

유보금과 자본금  
per gross ton

이자율



## 인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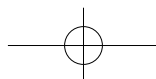
**이번 하반기 유보금은 미화 4억7,300만불로서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화 2,100만불이 감소된 것은 2013년에 높았던 클레임의 영향으로 인함이며, 최근 몇 보험년도에 걸친 지속적인 개선과 적당한 수준의 투자 수입으로 어느 정도는 상쇄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이맘때, 클럽은 클레임이 예전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는 감지하였는데, 미화 50만불 미만 상당의 클레임은 약간 증가하고 50만불 초과하는 통지된 클레임은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클레임이 예외적으로 낮았기에 지난해 이맘때즈음에 2.5%의 프리미엄 할인율을 공표 할 수 있었던 2011년도에 비해 큰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5월에 발행 되었던 Review of the Year에서는 2012년이 가장 정상적인 클레임 연도 흐름을 나타낸다고 명시 되었습니다.

호황기에 세계 선단 규모가 전례없이 성장했고, 요율에 대한 소위 해운시황 하락에 따른 노후선박매매 또는 폐선시 발생하는 보험료감소를 뜻하는 “대체효과(Churn Effect)” 의 영향으로 인하여 역사적으로 가장 저조한 수준으로 프리미엄이 내려 갔습니다. 2012년의 경험과 2013년 초반의 조짐은 클레임 곡선이 바닥을 쳤으며, 클레임이 다시 상승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번 간행물 다른 부분에서도 보고 되었듯이 2013 보험년도의 첫 6개월 수치 또한 클레임 수준이 더 높아질 것임이 확연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조한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여전히 낮은 클레임 건수에 반영 되지만, 클럽에서는 보유 범위(retention) 내에서 “큰” 규모의 클레임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금년 현재까지 클레임 중 두 건의 클레임을 Pool에 통지했습니다.

클럽의 건전한 재무관리에 대한 약속은 두가지 원칙에 기초하는데, 그것은 신중한 수준의 자본 및 유보금 확보로 Solvency의 기준치와 신용평가 기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균형 잡힌 언더라이팅을 통해 전반적인 사이클에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클레임 상승 추세에 비추어 (2011년 제외) 프리미엄 인상은 피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재무 실적 하이라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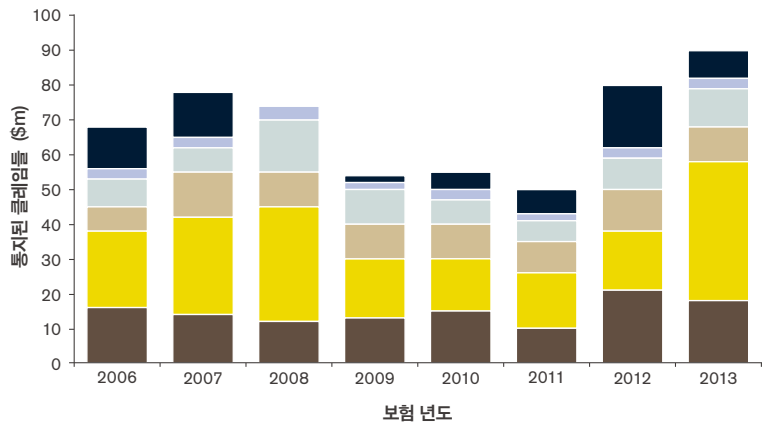
## 클레임 가치와 구성 요소들

- 2013년 상반기 6개월간의 총 클레임 비용은 예년 보험년도의 동일한 시점보다 높음
- 대규모 사상자 클레임이 전반적인 클레임 인상의 가장 큰 요인임
- 2013년도 대규모 클레임(50만불 이상)이 전체 클레임의 2/3를 차지
- Pool 비용은 본 클럽의 비용분담 감소에 따라 하락
- 선원 질병 클레임들은 매년 평균 12%의 달하는 장기 인플레이션 성장을 보였음

키 (Key)

- 화물 ■ 사상자 ■ 질병
- 부상 ■ 용선주 ■ 푸-울

2006-2013년 보험 년도 기간중 상반기 6개월 시점에 통지된 클레임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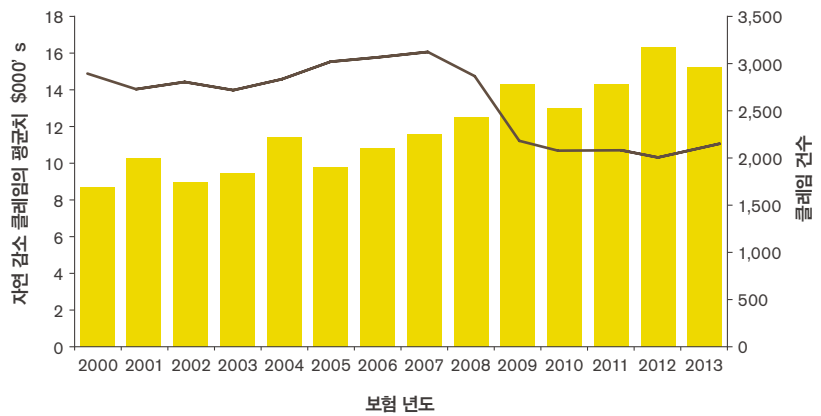
## 클레임 빈도와 가치

- 클레임 빈도는 2009년에 급락함
- 각 자연 감소 클레임들의 평균 비용은 2006년 이후 30% 증가
- 자연 감소 클레임 총 비용은 낮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2006년과 비슷 (도표 4, 페이지 5 쪽 참조)
- 이 그래프는 각 자연감소 클레임의 평균 비용을 보여줌. 도표 4 (페이지 5)는 통지된 모든 자연 감소 클레임을 보여줌

키 (Key)

- 자연 감소 클레임의 평균 비용
- 클레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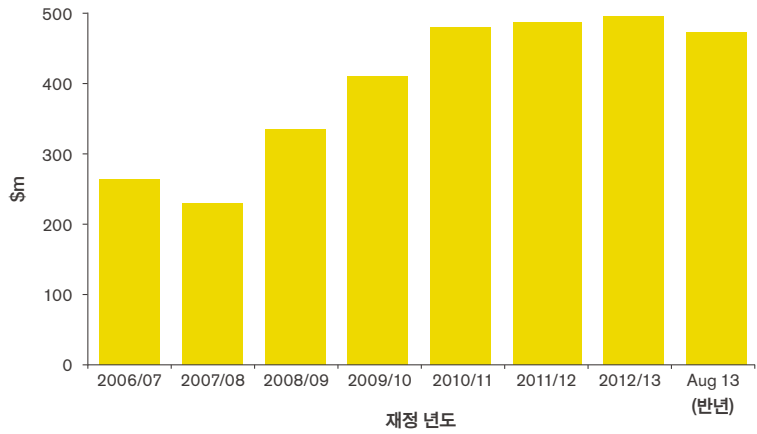
자연 감소 클레임들 (<\$0.5m) -2000년 2013년 사이에 상반기 6개월차에 평균 클레임 빈도와 비용



## 재무 건전성

- 2013년의 클레임 증가에 따라 2008년 이래 처음으로 자본금 하락
- 본 클럽은 계속 충분한 자본을 안전하게 보유해서 규제적 요구사항과 신용평가기관 목표를 충족시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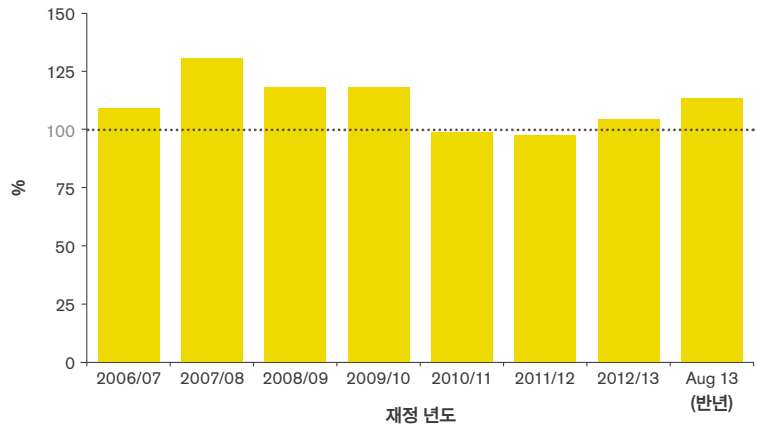
2006년과 2013년 재정년도 사이에 자본과 유보금



## 언더라이팅 원칙

- 보험 년도 반년 정산시기에 113%의 이재율은 클럽의 허용범위에서 벗어남.
- 클레임 인플레이션과 대규모 클레임이 증가의 원인

2006년과 2014년 재정년도 사이에 이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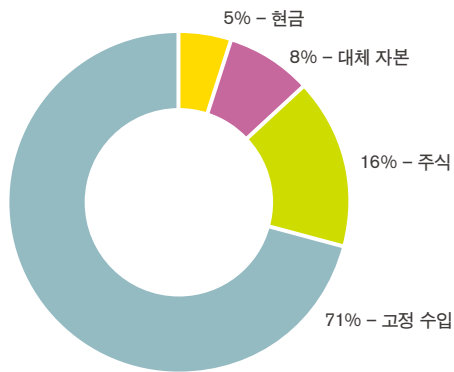


키 (Key)  
■ 이재율    ..... 타겟

## 투자 포트폴리오

- 신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자산의 76%를 현금이나 고정수입 증권으로 보유
- 포트폴리오의 주식 부분은 첫 6개월 동안 양호한 성과를 보임

2013년 8월 말 자산 포트폴리오



# 클레임들

2012와 2013 보험년도의 성과는 클레임이 다시  
상향세를 타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특히 성과가 좋았던 2011년 이후, 2012년동안 클레임의 빈도는 해운 업계의 불경기  
영향의 압력을 받았지만 클레임 가치는 증가했습니다. 2012년 정산에서 대규모  
클레임이 증가했고, 특히 Pool 클레임 건수가 증가했음을 명확히 나타냈습니다. 올  
보험년도의 상반기 6개월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5년 중 클레임이 가장 비싼 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에 비해 대부분의 클레임이 클럽의 보유 범위 안에  
있으면서도 대규모 클레임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도표 1: 상반기 6개월의  
통지된 클레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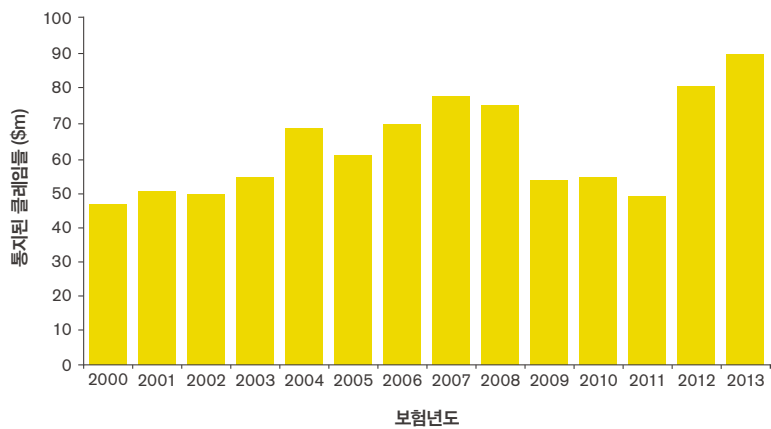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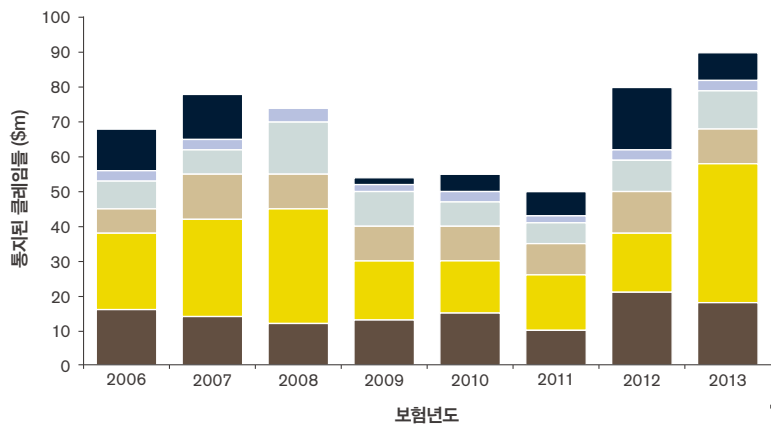


도표2: 2006 - 2013  
보험년도의 범주별 상반기  
6개월 정산에 통지된  
클레임들

- 키 (Key)
- 화물 (Cargo)
  - 사상자 (Fatalities)
  - 질병 (Disease)
  - 부상 (Injury)
  - 용선주 (Shipowner)
  - 푸울 (P&I)



리스크를 종류별로 분석한 통지된 클레임들 (도표 2)은 푸울 클레임과 화물 클레임이  
2012년의 클럽에 미친 영향, 또한 2013년 사상자 클레임에 관한 (클럽의) 노출  
상태를 보여줍니다. 반면 2012 보험년도의 상반기 6개월 정산에 나타났던 높은  
푸울의 비용에 비하여, 2013년도의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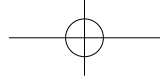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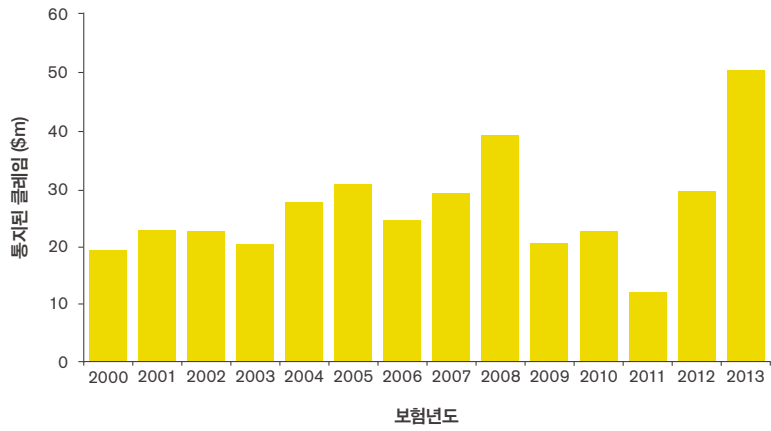


도표 3: 대규모 클레임 들 (50만불 이상) - 상반기 6 개월차에 통지된 클레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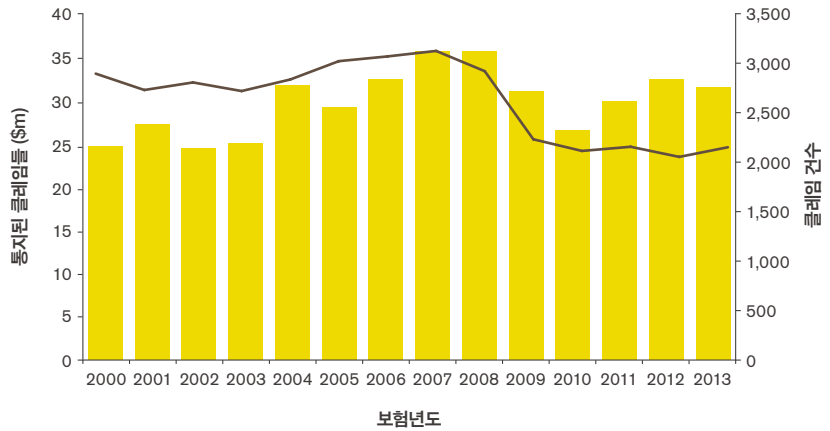


아직은 2013 보험년도 초기이지만, 상반기 6개월간에 대규모 클레임들의 빈도, 특히 3백만불이 넘는 클레임들의 빈도는, 최근 그 어느 해보다도 높았습니다. 이번 보험년도의 통지된 대규모 클레임들(50만불 이상)의 총액은 지난 15년 중 어느 해 보다 25%가 높으며, 해당 기간에서 건수로는 총 클레임의 1%에 지나지 않지만 총 비용 면에서는 전체 클레임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표 4: 상반기 6개월차에 집계된 자연 소모 클레임들 (50만불 이하)

Key (키)

통지된 클레임들 — 클레임들의 빈도수



자연 소모 클레임들은 세계무역 및 해운업계 활동 수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의 경우 매크로 경제 하락의 영향으로 클레임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 들었습니다. 그 후에 거의 30% 하락한 클레임 건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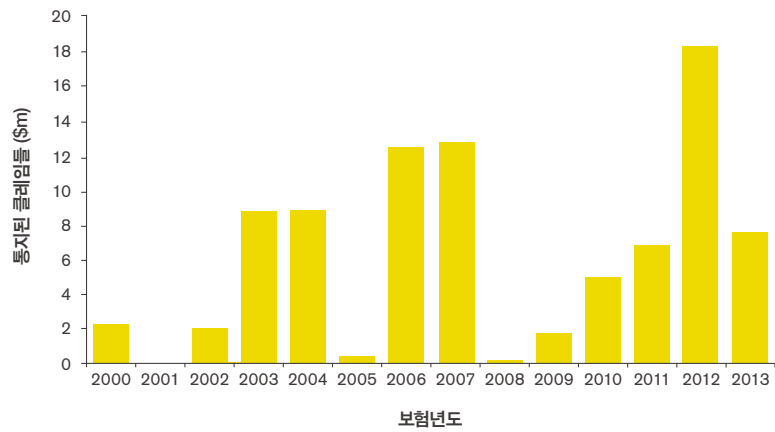
2009년과 2010년에는 클레임 빈도 감소로 클레임 총액은 크게 감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클레임 비용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클레임 빈도는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2012년 2013년 보험년도에 속한 클레임 총액은, 최고의 클레임을 기록했던 2007년과 2008년의 전년도인 2006 보험년도에 기록된 클레임 총액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복되는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 경제 하락 시기 전 수준으로 클레임 건수가 다시 급작스레 증가한다면, 지난 3년간 주시 했던대로 클레임 건당 비용이 다시 증가하면서 복합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프리미엄과 클레임 사이의 차이는 계속 커질 것입니다.

## 푸-울 클레임들

2012년의 푸-울 클레임들은 여전히 비쌉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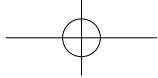
도표 5: 상반기 6개월 차에 푸-울에 통지된 클레임들



2013년의 상반기 6개월 정산에서 푸-울에 통지된 클레임들 중에 두 건의 클레임은 유케이 클럽에서 통지 했습니다.

푸-울 클레임들의 보험 년도 기간중에 진행 상태가 들쭉날쭉해서 전개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2012년의 푸-울은 여전히 비싼편이지만 본 클럽은 푸-울의 재보험을 통해서 상당의 액수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클럽의 푸-울 기록은 꾸준히 모범적이며 일년 정산의 손해율은 71퍼센트입니다. 그 결과 클럽의 푸-울 기록은 새로운 푸-울 공식 적용에 의해 1억 6천 9백만불의 달하는 흑자를 남겼고, 클럽의 2013년도 푸-울에 대한 할당 몫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 언더라이팅

본 클럽 상호 보험 소유의 용적 톤수는 보험 갱신 후 꾸준히 증가해서 현재 1억 2,250만 GT에 달합니다.

클럽의 순성장은 신규 보험으로 인한 총매출이 비교적 높은 수치인 640만 GT의 가입으로 증가한 한편 410만 GT가 매각 또는 폐기된 것에 결과입니다. 클럽은 새로운 멤버들과 신규계약을 환영 하지만 높은 수준 멤버 회사들을 유지함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성장만을 위해 클럽의 수준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클럽은 끊임없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2013년도에는 지난 10년 수치에서 가장 높은 750만 GT의 계약을 현재까지 거절했습니다.

지난 2년간 많은 멤버들이 자사 선대를 교체하였고 이는 클럽 전체 선복의 선령대를 지난 수십년간의 어느때 보다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신조선의 보험료는 오래된 선박보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런 젊은 선령대는 소위 "대체효과(Churn Effect)" 로써 클럽의 톤당 보험료를 전반적으로 감소하게 하였고, 따라서 보험료의 수준은 클레임 내력 또는 선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상될 필요가 있습니다.

침체된 수익과 지속되는 선박업계의 불경기는 많은 멤버 회사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Review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실제 클레임 총액, 점차적으로 상승일로에 있는 보험 청구액의 기본적 추세, 그리고 기록적으로 적었던 클레임 총액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아 갈 것 이라는 것을 참작해서 앞으로의 프리미엄을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프리미엄이 지금 인상되지 않으면 해운업계의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보험청구 총액이 보다 더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아 갈 때 프리미엄이 대폭 재조정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다소 인상된 보험료를 낼 것인지 아니면 훗날에 프리미엄이 대폭 인상되는 고통을 겪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클럽의 이사회에서는 훗날에 대폭 인상되는 상황은 장기전으로 보았을때 클럽이나 멤버들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투자가 불안정하고 클레임 비용이 증가하는 사업환경에서는 클럽이 언더라이팅 실적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투자 수입으로 보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클럽이 균형잡힌 언더라이팅을 지속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 재보험

2011년도의 격심한 손실은 인터내셔널 그룹의 재보험 갱신에 다시 한번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작년 11월 이래 2011년도의 클레임은 거의 미화 5억불에 달했습니다. 이 액수에는 COSTA CONCORDIA호의 클레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뉴질랜드 부근에서 난파한 RENA 호의 제거 비용인 미화 5천만불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으로 보자면 이 선박은 2004년 보험년도 후 초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받은 보험료는 총 미화1천5백만불에 달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재보험 시장은 난파선 제거 비용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런 종류의 사고로 인해 앞으로도 클레임 비용의 증가를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인터내셔널 그룹과 밀접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험 갱신시 재보험 비용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는 전과 마찬가지로 인터내셔널 그룹의 분과 위원회에서 검토될 것입니다. 이 분과위원회에서는 재보험 할당에 사용되는 선박의 타입을 늘릴 필요가 있는지,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클레임이 상당량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본 클럽 자체의 포괄적인 재보험 프로그램을 재개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클럽 자체의 모델을 사용해 평가될 것이며 이는 또한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2012년에 푸-울에 대한 본 클럽의 몫을 상당량 회복시켜 줌으로서 그 가치를 이미 입증한 바 있습니다.

## 투자

재정년도 상반기 시점에서 우수한 투자수익인 미화 700만불을 기록했으며 이 수치는 0.6% 투자 수익률에 상당합니다.

양적완화가 축소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에 따라 채권수익률이 상승하면서 높은 자기자본이익률이 고정이자 시장의 약세를 상쇄해 주고 있습니다.

클럽의 투자 정책은 꾸준히 신중을 기하는 것이며 현재 클럽 총 자산의 76%가 고정 이자 및 현금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클럽의 수익은 증가했으며 금년에 3%의 수익을 올린다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자본관리

클럽의 재무 현황은 꾸준히 우수하며 2013년 8월 20일 현재 총당금과 자본금은 미화 4억 7,300만불이며 총자산은 미화 16억불입니다.

클럽은 S&P 자본 모델의 AA 수준을 목표로 충분한 자본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자본은 Solvency 2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충분할 것입니다. S&P 등급은 단순히 자본 수준만 참작하지 않으며 모든 P&I 클럽의 언더라이팅 현황을 핵심적인 요소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엄격한 언더라이팅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본 클럽으로 하여금 A-(긍정적 전망)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 클럽은 소유한 신증자본증권을 성공적으로 동의 권유하여 낮은 7.5%의 쿠폰을 달성했습니다. 신증자본증권은 클럽이 보유해야 하는 멤버들의 돈을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법률적 및 신용평가 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함으로 클럽의 자본 계획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UK P&I CLUB** 

**Thomas Miller P&I Ltd  
London**  
Tel: +44 20 7283 4646  
Fax: +44 20 7283 5614

**Thomas Miller (Hellas) Ltd  
Piraeus**  
Tel: +30 210 4291 200  
Fax: +30 210 4291 207/8

**Thomas Miller (Americas) Inc  
New Jersey**  
Tel: +1 201 557 7300  
Fax: +1 201 946 0167

**Thomas Miller (Hong Kong) Ltd  
Hong Kong**  
Tel: +852 2832 9301  
Fax: +852 2574 5025